

중장년 정책

Insight 2025-2호. Vol.24

본 호는 2025.3.11.(화) 개최된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2025(1차)」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책칼럼

중장년 일자리  
‘한국사회 문제해결의  
절대반지’

전영수 교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정책동향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1차)」 성과와  
정책연구 방향

강소량 팀 장  
정혜윤 파트장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



정책칼럼

## 중장년 일자리 ‘한국사회 문제해결의 절대반지’

전영수 교수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중장년과 일자리는 한국사회의 구원투수다. 중장년의 일자리가 흔들리며 수많은 난제를 키워낸 탓이다. 사회병폐 원류는 중장년의 일자리가 적거나 없어서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예전엔 안 그랬다. 중장년의 일자리가 유토피아를 품었다. 집안가장, 회사기둥, 사회허리가 탄탄하니 모두가 중산층이라며 한강의 기적까지 일궈냈다. 더는 아니다. 당연했던 조합은 흔들리는 중이다. 성장·복지가 무너지며 충격여파가 이들을 정조준한다. 중장년 고용불안이다. 퇴직연령 49세가 상징통계다. 정책지원은 별로다. 청년은 챙기고, 노년은 돌봐도 중장년을 위한 정책은 드물다. 각자도생일 뿐이다.

당연한 건 없다. 중장년 출퇴근이 의심받는 시대다. 응당 일할 걸로 보이나, 실은 빠지고 걸도는 실업중년이 술하다. 50대 월급쟁이를 행운아로 칭하나, 한꺼풀만 벗기면 실업예비군을 뜻한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장기·복합의 구조불황이 예고됐다. 노청그룹의 전유물이던 실업공포가 중장년을 향한다. 후폭풍은 상상초월이다. 취약계층을 지지하던 핵심주체인 중장년의 자기빈곤 딜레마다. 사회유지의 일등공신인 ‘일하는 중장년’의 명제가 붕괴되는 것이다. 서둘러 막아야 한다. 데칼코마니였던 ‘중장년+일자리’의 섀넌강화가 절실하다. 둘의 분리가 낳은 비정상을 되찾을 때다.

기대효과는 확실하다. 당장 안착된 초저출생에 맞설 노동감소의 유력카드다. **노동부족에 대항할 카드는 △후속세대 출생증가 △노동수입·이민확대 △생산현장 로봇확대 △비경활인구 완전연소 △평생근로·계속고용 등 5가지다. 이때 손쉽고 확실한 별충방안이 평생근로·계속고용이다. 우선대상은 중장년이다.** 지금처럼 특정연령을 이유로 ‘생산가능인구→피부양인구’로 바뀌는 기계적인 전환은 곤란하다. 많은 사회문제의 시발점이다. 일하는 중장년의 자연스런 늙음만이 생산확대·소비강화·재정건전·사회활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근로능력·의지가 있다면 뒷방퇴물은 금물이다.

염려·반발은 설득해야 한다. 가령 ‘정년연장→청년실업’의 경합논리가 그렇다.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쟁탈의 화두다. 연구결과는 엇갈리나, 좋은 일자리를 늘려 경합전선을 줄이는 게 먼저다. 계속고용의 한정된 수혜그룹도 갈등적이다. 상당수는 정년이전에 물러나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이다. 공무원·대기업 등 ±10%의 근로자만

수혜자다. 비정규직 등의 안전장치가 전제과제다. 일해도 임금이 줄면 문제다. 임금피크제로 오래 일하되 소득이 별로면 평생근로의 유인은 줄어든다. ‘고령자=고임금’이라 기업반발도 거세다. 이참에 **연령 차별적인 임금 체계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선진국도 그랬다. 일하는 중장년을 위해 정년 한계를 깬다. 일본은 70세까지 늘렸고(노력의무), 스페인(2027년)·독일(2029년)도 65세에서 67세로 올렸다. 미국·영국은 아예 정년자체가 없다.

점진·단계적인 개혁진행이 관건이다. 언젠가 닥칠 일이면 지금부터 대응하는 차원이다. 실행방식은 ‘재고용 → 정년연장 → 정년폐지’가 유력하다. 동시에 고성장 때 채택한 인플레이션의 고용·임금·승진·평가시스템의 구조개혁이 제안된다. **승패는 기업에 달렸다. 정부야 밀어붙여도 기업·직원이 외면하면 무용지물이다. 고용권 한을 줬 기업부담이 적도록 연착륙용 정책지원·자금보조도 성공열쇠다. 다양·유연한 근무방식이 실현될 때 평생현역은 실행된다.** 청년채용의 결합여지도 충분하다. 임금수준·직무유형별 비용절감분을 청년채용의 활용재원으로 돌리면 설득적이다. 갈등이 내포된 정년연장론에 함몰될 필요는 없다. 모두가 일하는 평생근로를 통한 전체활약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

첫 단추는 부머경제학으로 정리된다. 중장년, 요컨대 베이비부머의 맘과 몸에 한국사회의 미래행방은 달렸다. 숫자마저 파워풀해 1,700만명(1955~74년)을 뽐낸다. 숙련까지 갖췄으니 무적존재다. 이들이 계속해 생산가능인구로 잔류·활동하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몇몇 전제조건과 이해조정이 필요하나, 못할 건 없다. 제도수정·인식전환에 따른 갈등비용보다 ‘부양대상→생산주체’의 전환성과가 훨씬 세고 길다. 정년은퇴의 구시대적 퇴물질서는 수정대상이다. 수명연장·재정악화·숙련전승 등 시대변화에 맞는 신고용준칙이 필요하다. 한줌도 안되는 이해타산이 반대·저항한들 베테랑의 평생활약은 정해진 미래다. 뜯어보면 모두가 원하는 바다. 베테랑의 귀환을 위한 넋지를 찾아 방아쇠만 당기면 본인도, 회사도, 사회도 모두 실보다 득이 많은 만능카드다.

✕ 위 칼럼은 3월 11일 개최된 『서울시 중장년 정책 포럼 2025』 현장에서 다루지 못한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전** **영수 교수**는 기자 출신 경제학자로 인구통계와 세대 분석을 연구하는 고령화 대응 전략 오피니언 리더이다. 정부 부처·서울시 등에서 인구정책 자문위원과 언론사 칼럼니스트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저서 〈인구감소, 부의 대전환〉을 통해 웰페어노믹스 관점에서 1,700만 베이비부머를 생산가능인구로 활용해 저성장, 재정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정책동향

#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 2025(1차)」 성과와 정책연구 방향

강소량 팀 장  
정혜윤 파트장  
서울시50플러스재단 정책연구팀

## 중장년 일자리 패러다임의 대전환 선도

2025년은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역사적 분기점으로 전국 2,000만 명, 서울시 365만 명에 달하는 중장년(만 40~64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생산인구의 본격적 감소로 중장년이 핵심 노동 주체로 더욱 중요해지면서 중장년 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해법 모색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이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자 중장년 일자리 환경의 패러다임 대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서울시 중장년 정책포럼」을 재단의 올해 핵심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 11일(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 1차 포럼에는 약 510명(현장 140여 명, 온라인 370여 명)이 참여하여 중장년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다산콜재단, 서울연구원, 서울시 50플러스센터 등 서울시 주요 기관들과 부산, 대전, 세종, 광주, 경기 등 전국 17개 지방도시 중장년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중장년 지원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포럼은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영수 교수의 “중장년과 웰페어노믹스: 달라진 베이비부머로부터 지속가능성의 기회 찾기”라는 기조강연으로 시작되었다. 강연을 통해 중장년 일자리를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닌 경제 활성화 관점의 ‘웰페어노믹스(welfare+economics)’로 접근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어서 두 개 세션과 종합토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왜 중장년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간 서울시의 중장년 정책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며 향후 중장년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사전 신청자와 현장에서 받은 100여건이나 될 정도로 참석하신 분들의 포럼 내용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다.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 정책은 복지가 아닌 일자리 중심의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40, 50, 60대를 아우르는 중장년층을 연령대 별 맞춤형 정책과 풀타임, 파트타임 등 유연한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여

▶  
전영수 교수(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는  
기조강연에서 중장년 일자리 문제를  
‘웰페어노믹스(Welfare+economics)’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



중장년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둘째, 중장년 일자리를 위한 독자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 고령자에 비해 소외되어 있던 중장년의 일자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독립적인 중장년 지원법(가칭) 제정이 강조되었다.

**셋째, 노동시장에서 중장년 채용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중장년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장년의 건강 등 생애주기를 고려한 근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 되었다.

**넷째, 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장년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채용 인센티브 확대, 유연한 근무제 도입, 직무 재설계 등 기업에게 매력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이번 포럼은 중장년 일자리 문제가 개인을 넘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계속고용 등 중장년 일자리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아울러,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중장년을 지원해 온 공공-민간 기관들이 공동의 문제 인식과 한계를 공감하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하여 발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는 2025년 9월 23일(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제2차 포럼에서는 1차 포럼에서 도출된 정책 과제들을 기반으로 학계, 현장전문가, 기업 등과 함께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 로드맵」을 수립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 미래 서울, 중장년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



중장년의 든든한 50년을 위한 서울시의 중장년 정책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서울시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중장년 1만 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수요조사 및 심층분석을 수행한다.** 임금수준, 근무조건, 근무환경, 직무 등 다양한 일자리 요건에 대한 중장년의 희망 수준과 수용 가능 범위를 파악하고, 각 요건 간 타협 시 우선순위와 필요조건, 그리고 타협 불가능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장년이 일자리를 선택할 때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타협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연령대별, 경제활동 유형별로 일자리 니즈를 유형화하여 세분화 된 집단별 맞춤형 정책 설계가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기업과 중장년에게 이익이 되는 맞춤형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중장년 채용에 대한 기업의 실질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기업과 중장년이 상생하는 일자리를 위한 정책 지원 전략을 도출한다.** 기업의 중장년 인력 기피 요인, 선호 인재상, 그리고 중장년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규제 완화, 지원 정책 등에 대한 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여 현 노동법제 개편방안을 제시한다. 즉, 기존 연구와 달리, 철저하게 기업의 시각에서 중장년 고용 문제를 바라보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울시 중장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 중장년 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책적 틀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서울시 중장년 고용 현황 및 국외 일자리 지원 정책·제도·법 사례를 분석하여 서울시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다. 중장년 정책분야를 생애주기별(40대: 경력전환, 50대: 직무전환 및 재취업, 60대: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참여) 니즈를 고려하여 구분하고 정책 영역은 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지원, 정착 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각 과제의 실행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재단은 중장년 정책 로드맵 수립은 물론 중장년 일자리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민관협력을 본격화하고 중장년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여 중장년이 활기차게 오래 일할 수 있는 서울을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중장년 정책 Insight

Vol. 24

2025-2호

발 행 인 강 명  
발 행 처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3길 73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 4층 정책연구팀  
02-460-5050  
I S S N 3022-7437  
발 행 일 2025년 3월 31일  
디 자 인 (주)케이에스센세이션

Copyright ©2025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중장년 정책 Insight』는 중장년 정책의 핵심의제를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담론을 통해 정책 변화를 선도하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의 정기간행물입니다.

『중장년 정책 Insight』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담당(policy@50plus.or.kr)에게 연락 바랍니다.